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 주 리¹⁾

성 윤 희[†]

본 연구는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the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Esses, Jackson, & Armstrong, 1998)에 기초하여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도 알아보고,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을 매개로 제로섬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이공계 대학생 310명(남자 234명, 여자 76명)으로 이들은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차별적 인식, 제로섬 신념을 측정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SPSS Macro Proc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는 성차별적 인식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의 관계는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남성에게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에게서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성에게서만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남성의 성차별적 인식을 유발하고, 이러한 성차별적 인식은 제로섬 신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성에게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을 통해 제로섬 신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여겨진다.

주요어 :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차별적 인식, 제로섬 신념, 성별, 조절된 매개효과

1)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 성윤희, K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4길 47
Email: 0f30@kcu.ac.kr

최근 국외에서는 대인 갈등과 집단 갈등의 기저에 존재하고 있는 심리적 개념인 제로섬 신념에 주목하며,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과 같이 국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제로섬 신념과 관련된 연구가 앞으로 더욱 촉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Fearon, Götz, Serapio-García, & Good, 2021). 제로섬(zero-sum)이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제한적이라고 믿을 때 그 자원을 둘러싼 개인 간, 집단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제로섬은 경제주체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게임이론(von Neumann & Morgenstern, 1944)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어떤 사회나 시스템에 존재하는 이익의 양이 한정되었다고 믿을 때, 누군가의 이득은 다른 누군가의 손해로 인식하는 개인의 믿음을 나타낸다(정주리, 2021).

제로섬 신념(Belief in a Zero-Sum Game: BZSG) 개념을 사회적 공리(social axiom)의 하나로 제안한 제로섬 신념이론(Rózycka-Tran, Boski, & Wojciszke, 2015)에서는 제로섬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처럼 삶에 대해 적대적인 관점을 가질 때 사람들은 타인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여 협동보다는 갈등의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Bond, Leung, Au, Tong, & Chemonges-Nielson, 2004). 다시 말해, Rózycka-Tran 등(2015)의 제로섬 신념 이론에서는 개인 간, 집단 간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고 한 개인이 얻는 이득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이나 희생을 야기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관계를 적대적이고 경쟁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the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Esses et al., 1998)은 이러한 개인 간 갈등,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 간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제로섬 신념과 관련하여 잘 설명해준다.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은 한 사회 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나타나는 갈등과 차별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자주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주류집단이 이주민이나 소수 인종에 대해 나타내는 차별적 태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에서는 집단 간 경쟁은 구체적으로 자원 스트레스(resource stress)와 경쟁적인 외집단 존재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본다(Esses et al., 1998). 자원 스트레스의 측면에서는 자원이 희소할수록, 자원이 불공정하게 배분될수록, 위계적인 사회 구조를 선호할수록(Esses, Dovidio, Danso, Jackson, & Semanya, 2005) 집단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고 본다. 또한, 외집단 존재와 관련해서는 외집단과 내집단의 구분이 분명할수록, 외집단이 자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집단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고 본다(Esses et al., 1998). 이렇게 집단 간 경쟁을 지각하게 되면 개인의 제로섬 신념이 더욱 활성화되고, 외집단과의 경쟁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정주리, 2021; Esses et al., 1998).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제로섬 신념 척도가 타당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제로섬 신념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지만(정주리, 2021), 국외에서는 제로섬 신념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심리적 건강(Borawski, 201; Rózycka-Tran et al., 2021; Wong et al., 2017), 대인 관계(Sicard, & Martinot, 2018), 집단 갈등(Fearon et al., 2021;

Piotrowski, Różycka-Tran, Baran, & Żemolte-Plotrowska, 2019; Stefaniak, Mallett, & Wohl, 2020)과 관련하여 제로섬 신념의 부정적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이 최근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로섬 신념이 갖는 부정적 영향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로섬 신념을 형성하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들 역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로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들도 최근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계층(Wilkins, Wellman, Babbitt, Toosi, & Schad, 2015), 상황적 위협(Perkins, Dils, & Flusberg, 2020), 또는 정치적 성향(Davidai & Ongis, 2019)에 따라 제로섬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의 현재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성향, 또는 상황적 위협이 제로섬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제로섬 신념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게 되는지, 다시 말해 제로섬 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였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몇 가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로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요인으로 가부장적 환경의 영향력을 추정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에서는 위계적인 사회 구조를 선호할수록 개인 간, 집단 간 관계를 경쟁적인 관계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Esses et al., 2005). 가부장적 가정환경이란 아버지가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권력을 갖고,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아들 간의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 및 권력의 차별적 배분으로 특정 지워지는 가정환경을 의미한다(성윤희, 정주리, 2019; Castells, 1997).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권력이란 가족 구성원에게 고루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이와 성별

을 기준으로 특정 가족 구성원(가부장)에게 집중된 제한된 자원이다. 이러한 권력은 전통적으로 제로섬으로 인식되어 기존의 권력 구조에 변화를 주어 자원의 재분배를 시도하려는 것은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Davidai & Ongis, 2019; Read, 2012). 다시 말해, 가부장적 가정환경의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권력 구조와 뚜렷한 성별 간의 역할 구분은 제한된 자원인 권력을 둘러싼 제로섬 신념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족 구성원 간의 집안일 배분에 있어서 권력과 관련된 규범이 작용하게 되며(Barstad, 2014), 이러한 역할 배분 역시 성별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Amato, Booth, Johnson, & Rogers, 2007). 이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구성원들의 제로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권력구조의 선호 정도(Davidai & Ongis, 2019; Read, 2012), 가족 구성원 간 집안일 배분 등과 관련하여(Amato et al., 2007; Barstad, 2014)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기에 개인이 인식하는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가부장적 가정환경 내에서 제로섬 신념은 성차별적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 즉, 성차별적 인식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을 매개할 수 있다. 성차별적 인식이란 전통적인 성역할을 선호하면서 전통적으로 특정성별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에 다른 성별이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Glick et al., 2004). 즉, 성별을 기준으로 집단 간의 뚜렷한 경계를 설정하고,

기존의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관점을 나타낸다.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에서는 외집단과 내집단의 구분이 분명할수록, 경쟁과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Esses et al., 1998). 따라서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일부 남성들은 남녀 관계를 지배·종속 관계로 바라보거나(Ruthig et al., 2017),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성차별적 남녀관계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있다(성윤희, 정주리, 2019). 그리고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일부 여성들 역시 기존의 가부장적 힘의 구조를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성차별적 인식을 내면화할 가능성도 있다(Roet, van Hiel, & Dhont, 2012). 이렇듯 가부장적 가정환경의 개인이 성차별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성윤희, 2020).

따라서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차별적 인식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뚜렷해질수록 제로섬 신념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Esses et al., 1998). 즉, 남녀 모두 성차별적 인식을 가질수록 타인, 혹은 외집단과의 관계를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타인이나 외집단의 이익을 위한 시도가 자신에게 손해를 야기한다고 믿는 제로섬 신념을 나타낼 가능성이 클 것이다(Ruthig et al., 2017). 실제로 사회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의 영향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배성을 선호하거나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지는 남성과 여성들은 성차별적 인식을 매개로 성별과 관련한 제로섬 신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uthig et al.,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도 성차별적 인식은 제로섬 신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Wilkins et al.,

2015). 따라서 남녀 간의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자신이 속한 성별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 다른 성별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별을 넘어서 그 외 영역까지 일반화하여 개인 간, 집단 간 관계를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타인과 외집단의 이익이 자신과 내집단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제로섬 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개인에게 성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고, 성차별적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한 제로섬 신념을 가지며, 이는 일상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는 시도와 노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가치가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성차별적 인식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지만(Sibley, Wilson, & Duckitt, 2007), 여성의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가치와 자신의 이익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의 관계가 남성에게 비해 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병해, 고재홍, 2006), 성윤희(2020)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 역시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고자 한다. 특히, 성차별 문제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크며, 특히 특정 성별 구성원이 우세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내집단의 내러티브만을 강화하고, 외집단의 내러티브는 배척하는 경향이 커짐으로써 성별 간 갈등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다고 밝혀진 성인초기 남녀(김수아, 이예슬, 2017; 류연규, 김영미, 2019; 유주연, 안현의, 2020)를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제로섬 신념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는 성차별적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은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4.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는 성차별적 인식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이공계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행사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 설문의 익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설문 응답에 대한 보상으로 다과를 제공받았다. 대학교 고학년이 아닌, 신입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많은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집을 떠나 생활한 지 오래된 대학교 고학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참여한 연구대상 310명 중 남학생 234명(75.5%), 여학생은 76명(24.5%)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에서 차이가 컸으나, G*Power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샘플 수를 계산했을 때 68명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 수는 78명으로 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넘어섰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으로 18.74세($SD=.5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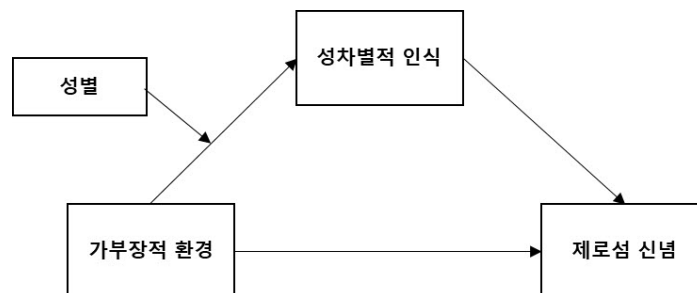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측정도구

가부장적 가정환경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성윤희, 정주리(2019)가 신동준(2011)과 이성식(2011)이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던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객관적인 환경보다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들 중 “우리 집에서는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는 문항은 “우리 집에서는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로 수정하였고, “우리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문항은 “우리 부모님은 기왕이면 아들이 더 잘 되길 바라셨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항 수정의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보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학업 능력과 같은 자녀의 능력과 무관하게 성별에 따른 선호 인식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수정된 문항의 표현은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의 성장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김병영, 정소희, 김영호, 2012)를 참조하였다. 만약 가정 내 여성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적으로 여자 형제가 있다고 상상하고, 각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인식

성차별적 인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개정판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R-KGES)

단축형 척도(안상수, 김인숙, 김금미, 201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 직업생활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R-KGES 단축형 척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생활영역의 문항 예시는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교육생활영역의 문항 예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교육 목표는 달라야 한다,” 사회문화영역 예시는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직업생활영역 문항 예시는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제로섬 신념

참가자들의 제로섬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Różycka-Tran 등(2015)이 개발한 제로섬 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칙도 8개의 문항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거주 경험이 평균 7년 이상인 연구자 2명에 의해 번안되었다. 문항 예시는 “어떤 사람들의 성공은 대개 다른 누군가의 실패와 같다,”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다. 다른 문항과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한 문항(“누군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더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을 제외하고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7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SPSS Macro Process 3.3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 분석, 매개효과(4번 모형), 조절효과(1번 모형), 조절된 매개효과(7번 모형)를 분석하였다.

결 과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가부장적 가정환경, 제로섬 신념, 성차별적 인식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제로섬 신념($r=.114, p<.05$)과 성차별적 인식($r=.346, p<.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제로섬 신념은 성차별적 인식($r=.285, p<.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연구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왜도는 3.0 미만, 첨도는 8.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간주되었다(Kline, 2010).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라 세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F(1, 308)=.304, p>.05$), 제로섬 신념($F(1, 308)=7.198, p<.01$)과 성차별적 인식($F(1, 308)=5.695, p<.01$)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제로섬 신념(남성 $M=3.613, SD=1.258$, 여성 $M=3.147, SD=1.179$)과 높은 성차별적 인식(남성 $M=1.610, SD=.682$, 여성 $M=1.295, SD=.475$)을 나타냈다.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의 매개효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공차한계(tolerance)가 .880으로 .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136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을 매개로 제로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제로섬 신념을 정적으로 설명하였고($\beta=.114$,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1	2	3
1. 가부장적 가정환경			
2. 제로섬 신념	.114*		
3. 성차별적 인식	.346**	.285**	
평균	1.465	3.499	1.533
표준편차	.585	1.330	.651
왜도	1.539	-.095	1.583
첨도	2.130	-.489	2.325

** $p < .01$

표 2.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b	SE	t	R^2
가부장적 가정환경	제로섬 신념	.114	.259	.129	2.017*	.013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차별적 인식	.346	.385	.059	6.481**	.120
가부장적 가정환경	제로섬 신념	.018	.040	.132	.302	.081
성차별적 인식		.279	.570	.119	4.782**	

* $p < .05$, ** $p < .01$

$p < .05$),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을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 = .346$, $p < .01$),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이 함께 제로섬 신념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제로섬 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고($\beta = .018$, $p > .05$), 성차별적 인식만 제로섬 신념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279$, $p < .01$),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성차별적 인식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인식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 95% 신뢰구간에서 표본 수 5,000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b = .097$ (Boot SE = .026)이고, 하한값(.051)과 상한값(.151)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전, 남성과 여성 표본 크기가 다르므로 남성과 여성 자료에서 등분산성 가정이 성립되는지 각각 잔차 산점도를 검토했을 때 특별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가지고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은 조절효과 검증 전에 평균중심화를 하였다. 가부장적 가정환경($\beta = .840$, $p < .01$)과 성별($\beta = -.205$, $p < .01$)은 각각 성차별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beta = -.527$, $p < .01$) 역시 성차별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표 3.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b	SE	t	R^2	ΔR^2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차별적 인식	.840	.934	.181	5.152**	.120	
성별		-.205	-.310	.078	-3.976**	.159	.039
가부장적 가정환경 × 성별		-.527	-.463	.143	-3.231**	.187	.028

주. 남성은 1로, 여성은 2로 코딩됨.

** $p < .01$

표 4.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조절변인	수준	<i>b</i>	<i>SE</i>	<i>t</i>	LLCI(<i>b</i>)	ULCI(<i>b</i>)
성별	남	.471	.064	7.345**	.345	.597
	여	.008	.128	.065**	-.244	.260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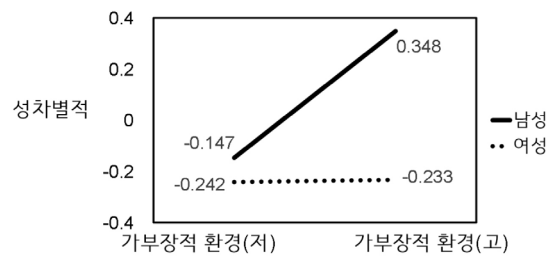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의 조절효과

인식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5,000개의 표본 수를 추출한 결과,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남성 집단에서는 가부장적 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 집단에서는 가부장적 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

표 5.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종속변인: 성차별적 인식						
	β	<i>b</i>	<i>SE</i>	<i>t</i>	LLCI	ULCI	R^2
가부장적 가정환경	.840	.934	.181	5.152**	.577	1.290	
성별	-.295	-.310	.078	-3.976**	-.464	-.157	.187
가부장적 가정환경 × 성별	-.527	-.463	.143	-3.231**	-.745	-.181	
변인	종속변인: 제로섬 신념						
	β	<i>b</i>	<i>SE</i>	<i>t</i>	LLCI	ULCI	R^2
가부장적 가정환경	.018	.040	.132	.302	-.221	.301	
성차별적 인식	.279	.570	.119	4.782**	.335	.804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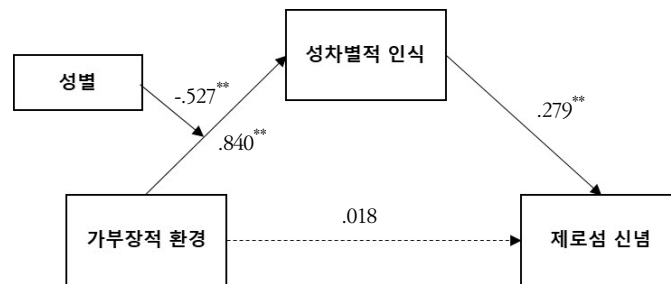
주. 남성은 1로, 여성은 2로 코딩됨.

** $p < .01$

표 6.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변인	수준	<i>b</i>	<i>SE</i>	LLCI(<i>b</i>)	ULCI(<i>b</i>)
성별	남	.268	.071	.147	.427
	여	.005	.058	-.108	.130

** $p < .01$



주. 남성은 1로, 여성은 2로 코딩됨.

그림 3. 조절된 매개모형

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7번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5,000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264(Boot\ SE=.089)$ 였고, 하한값($-.452$)과 상한값($-.104$) 사이에 0를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 6에서 제시한 것처럼 남성집단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을 통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여성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림 3에 표준화 계수를 표시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제로섬 신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장의 우월적 권력은 필연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낮은 권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권력은 제로섬에 해당할 수 있다(Read, 2012). 본 연구결과 역시 가족 내 권력이 제로섬의 방식으로 행사되는 위계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일수록 제로섬 신념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같은 위계적인 사회 구조 내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를 뚜렷하게 인식할수록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타인과의 관계를 적대적이고 제로섬 관계로 바라볼 가능성이 커짐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Esses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위계를 장려하는 환경은 구성원들의 불평등적 신념과 관련이 있고, 반대로 위계를 약화시키는 환경에의 노출은 반

평등적 신념과 사회지배성향을 유의하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맥이 닿아있다고 여겨진다(Sinclair, Levin, & Sidanius, 1998). 이 결과는 다수의 국외 선행연구들에서 제로섬 신념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Ruthig et al., 2017; Winkins et al., 2015), 사회지배성향(Ruthig et al., 2017), 주관적 안녕감(Różycka-Tran, et al., 2021), 외로움(Borawski, 2018), 정신건강(Wong et al., 2017) 등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및 성격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지만, 어떤 발달적 요인이 제로섬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는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제로섬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은 성차별적 인식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자녀의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unningham, 2001; Epstein & Ward, 2011)와 일치하며, 또한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차별적 인식처럼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를 뚜렷하게 인식할수록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타인과의 관계를 적대적이고 제로섬 관계로 바라볼 가능성이 커짐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Esses et al., 2005). 선행연구에서도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지배성향과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매개로 성별에 대한 제로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하였다(Ruthig et al., 2017).

셋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의 관계는 성별에 의해 조절되었다. 구체적으

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의 관계는 남성 집단에서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성역할고정관념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고정관념이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밝힌 선행연구(성윤희, 2020), 성별에 따라 성차별적 신념이 달라진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Schmitt & Wirth, 2009)와도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을 사회적 환경으로 확대해서 적용해본다면 국가의 성평등지수가 낮을수록 남성은 높은 성차별적 인식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국가 성평등지수와 성차별적 인식 점수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Glick & Fiske, 1996)와도 일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부장적인 가정환경이 남성의 성차별적 인식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성차별적 인식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성차별적 인식에 있어 성차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윤병해, 고재홍, 2006; Glick & Fiske, 1996). 남성의 경우,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남성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도록 동기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어느 문화권이든 여성과 비교해 남성의 성차별적 인식이 높고(Sidanius, Pratto, & Brief, 1995), 사회문화적 환경이 가부장적 가치를 용인하는 정도가 남성의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비우호적인 성차별적 인식을 거부하도록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기에(Sidanius et al., 1995) 성차별적 인식이 남성에 비해 낮고, 가부장적인 가정환경의

영향도 덜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환경적인 영향력보다 여성이라는 집단 소속이 성차별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Sidanius et al., 1995).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환경과 여성의 성차별적 인식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성인 초기 여성 집단의 일반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이공계 전공을 선택한 여자 대학생들에게 특수하게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는 성 고정관념은 여학생들의 수학, 과학 분야에 대한 자기 능력의 지각, 흥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Ghasemi & Burley, 2019; Shapiro & Williams, 2012),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이러한 성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한 이공계 여학생들의 경우, 또래 여학생들에 비해 가부장적인 가정환경의 영향을 덜 받았거나 성차별적 인식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연구를 통해 성 고정관념과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했는지 여부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역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제로섬 신념과의 관계는 성차별적 인식을 통해서 매개되고, 이러한 매개관계는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의 관계가 제로섬 신념에 의해 완전매개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성차별적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부장적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남성들은 성차별적 인식을 갖기 쉽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 권력과 위계를 지지하는 성차별적 인식은 젠더 관계를 넘어 사회적 관계 전반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일반된 인식, 즉 제로섬 신념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관계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남성 가부장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성별을 바탕으로 집단 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나눔으로써 권력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제로섬 신념을 이어질 가능성이 남성에게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차이는 제로섬 신념이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심리적 특권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Burleigh(2016)의 관점 및 사회적으로 지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성 불평등과 같이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는 가치와 신념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제로섬 신념의 가정(Wilkins et al., 2015)을 지지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간 행동을 사회적 지배 집단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동기로 설명한 사회지배이론(social dominance theory, Sidanius & Pratto, 1999)과도 연결된다고 여겨진다. 즉,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의 경우 남성의 특권과 우월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성차별적 인식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심리적 특권의식은 외집단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내집단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제로섬 신념으로 연관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사회의 여러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제로

섬 신념 연구가 더욱 촉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정주리, 2021; Fearon, Götz, Serapio-García, & Good, 2021)에 상응하며 국내에서 제로섬 신념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의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젠더갈등을 꼽을 수 있다. 젠더갈등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는 사회갈등으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20대에게서 심각하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류연규, 김영미, 2019). 정치, 고용 등의 영역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남성에게 대한 역차별 논쟁으로 이어져 젠더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분석에 비춰볼 때(류연규, 김영미, 2019), 젠더갈등 역시 제로섬 신념의 영향으로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성별 집단 간 갈등이 촉발,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경제 침체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위계적인 사회 구조를 선호하는 남성들은 성차별적 의식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직업, 권력, 사회적 지위를 두고 다뤄야 하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정책이나 시도들로 인해 자원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신들은 오히려 남성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Wong, Klann, Bijelic, & Aguayo,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이 촉발한 제로섬 신념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젠더갈등에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에 기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손실을 경험하면서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및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성차별적 인식과 제로섬 신념의 밀접한 관련성, 그리고 이러한 인식 형성에 있어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양성평등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심리적 기제를 밝힘으로써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가령, 가부장적 가정환경의 결과로써 생겨난 성차별적 인식이 남성에게 제로섬 신념을 촉발함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있어 이러한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내외집단을 구분하고, 나와 다른 성별을 권력이나 자원의 경쟁상대나 투쟁상대로만 인식할 경우,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제로섬 신념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 적대감, 갈등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차별적 인식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세계관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고,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유연한 세계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양성평등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로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남성학 연구자들은 성역할 긴장, 갈등, 스트레스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경직된 성역할 사회화가 남성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실시해 왔다(Levant, 1996; O'Neil, 2008; Pleck, 1981). 그와 비교해 제로섬 신념은 비교적 최근 들어 사회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개

념인데, 성차별을 포함하여 타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떻게 개인의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혔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흔히 남성중심적 전공으로 간주되는 이공계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교육수준, 전공, 연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전공 등이 다른 집단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차별적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는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 명백한 차별(overt discrimin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현대적인 성차별의 양상을 반영하는 미묘한 성차별(김예은, 연규진, 2018), 일상적인 성차별(김은하, 2018)과 같은 차별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 보고식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한 시점에 모두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동일방법편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특히, 성차별적 인식과 같은 경우 최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강조를 고려할 때, 참가자들의 응답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료 수집 방법이나 시점을 다양화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횡단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연구변인 간의 인

과적 관계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령, 성차별적 인식이 제로섬 신념을 기했을 수도 있으나 제로섬 신념이 강한 남성일수록 성차별적 인식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즉, 제로섬 신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통해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병영, 정소희, 김영호 (2011). 남아선호 가정에서 성장한 기혼여성의 가족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2), 95-126.
- 김수아, 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33(3), 67-107.
- 김예은, 연규진 (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99-523.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 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1), 89-133.
- 류연규, 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 성윤희 (2020).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

- 증. *인간발달연구*, 27(4), 1-19.
- 성윤희, 정주리 (201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547-567.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상수, 김인순, 김금미 (2016).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유주연, 안현의 (2020). 성인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유형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351-378.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성식 (2011).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62(8), 97-117.
- 정주리 (2011).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85-303.
- Amato, P. R., Booth, A., Johnson, D. R., & Rogers, S. J. (2007). *Alone together: How marriage in America is chang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stad, A. (2014). Equality is bliss?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972-992.
- Bond, M. H., Leung, K., Au, A., Tong, K. K., & Chemonges Nielson, Z. (2004). Combining social axioms with values in predicting social behavior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3), 177-191.
- Borawski, D. (2018). The loneliness of the zero-sum game loser. The balance of social exchange and belief in a zero-sum game as predictors of lonel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5, 270-276.
- Burleigh, T. (2016). "Your gain is my loss": An examination of zero-sum thinking with love in multi-partner romantic relationships and with grades in the university classroo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Guelph, Ontario, Canada.
- Castells, M. (1997). The power of identi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2(3), 72-75.
- Cunningham, M. (2001).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Gender and Household Labor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11-122.
- Davidal, S., & Ongis, M. (2019). The politics of zero-sum 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deology and the belief that life is a zero-sum game. *Science Advances*, 5(12), eaay3761.
- Epstein, M., & Ward, L. M. (2011). Explori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bout Gender: Results from Adolescent and Emerging Adult Samples. *Sex Roles*, 65(1), 108-118.
- Esses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

-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Esses, V. M., Dovidio, J. F., Danso, H. A., Jackson, L. M., & Semanya, A. H. (2005). Historical and modern perspectives on group competition. In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edited by Christian S. Crandall, Mark Schaller. Lawrence, Kan.: Lewinian Press, c2005.. Lawrence, Kan.: Lewinian Press
- Ghasemi, E., & Burley, H. (2015). Gender, affect, and math: a cross-national meta-analysis of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15 outcomes. *Large-scale Assessments in Education*, 7(1), 1-25.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 Lameiras, M., Fiske, S. t., Eckes, T., Masser, B., Volpato, C. et al. (2004). Bad but bol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en predict gender inequality in 16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5), 713-728.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Leung, K., Ip, O.K., & Leung, K. K. (2010). Social Cynicism and Job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59(2), 318-338.
- Levant, R. F. (1996). The new psychology of me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7(3), 259-265.
- Perkins, K. M., Dils, A. T., & Flusberg, S. J. (2020). The perceived threat of demographic shifts depends on how you think the economy work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1368430220951621>
- Piotrowski, J., Różycka-Tran, J., Baran, T., & Żemoltel-Plotrowska, M. (2019). Zero-sum thinking as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attitudes with (un)willingness to host refugees in own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4(6), 722-730.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 Read, J. H. (2012). Is power zero-sum or variable-sum? Old arguments and new beginnings. *Journal of Political Power*, 5(1), 5-31.
- Roets, A., van Hiel, A., & Dhont, K. (2012). Is sexism a gender issue? A motivat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 on men's and women's sexist attitudes toward own and other gender.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3), 350-359.
- Różycka-Tran, J., Boski, P., & Wojciszke, B. (2015).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4), 525-548.
- Różycka-Tran, J., Piotrowski, J. P., Żemojtel-Piotrowska, M., Jurek, P., Osin, E. N., Adams, B. G., ... & Maltby, J. (2021). Belief in a zero-sum ga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35 countries. *Current Psychology*, 40, 3575-3584

- Ruthig, J. C., Kehn, A., Gamblin, B. W., Vanderzanden, K., & Jones, K. (2017). When women's gains equal men's losses: Predicting a zero-sum perspective of gender status. *Sex Roles*, 76(1-2), 17-26.
- Schmitt, M. T., & Wirth, J. H. (2009). Evidence that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esult from gendered self-stereotyping and group-interested responses to patriarch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4), 429-436.
- Shapiro, J. R., & Williams, A. M. (2012). The role of stereotype threats in undermining girls' and women's performance and interest in STEM fields.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66(3-4), 175-183.
- Sicard, A., & Martinot, D. (2018). School as a zero-sum game between boys and girls: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1(1), 1-5.
- Sidanius, J., Pratto, F., & Brief, D. (1995). Group dominance and the political psychology of gender: A cross-cultural comparison. *Political Psychology*, 16(2), 381-396.
- Sidanius, J., & Pratto, F. (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bley, C. G., Wilson, M. S., & Duckitt, J. (2007). Antecedents of men's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The dual role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2), 160-172.
- Sinclair, S., Levin, S., & Sidanius, J. (1998). The interface between ethnic and social system attachmen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hierarchy-enhancing and hierarchy-attenuating environm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741-757.
- Stefaniak, A., Mallet, R. K., & Wohl, M. J. A. (2020). Zero-sum beliefs shape advantaged allies' support for collective a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6), 1259-1275.
- von Neumann, J., & Morgenstern, O. (1944).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kins, C. L., Wellman, J. D., Babbitt, L. G., Toosi, N. R., & Schad, K. D. (2015). You can win but I can't lose: Bias against high-status groups increases their zero-sum beliefs about discrimi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7, 1-14.
- Wong, Y. J., Klann, E. M., Bijelic, N., & Aguayo, F. (2017). The link between men's zero-sum gender beliefs and mental health: Finding from Chile and Croatia.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8(1), 12-19.

논문 투고일 : 2021. 07. 28
1 차 심사일 : 2021. 08. 12
2 차 심사일 : 2021. 10. 19
게재 확정일 : 2021. 11. 02

The Rela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Zero-sum Beliefs with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ender through Sexism

Ju-Ri Joe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onhee Sung

KC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zero-sum belief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xism on the relation based on the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Esses et al., 1998).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sexism,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ender through sexism. Participants were 310 first-year college students (234 males and 76 females) in the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and they completed a survey consisting of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sexism, and zero-sum belief.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Macro Process,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zero-sum beliefs was fully mediated by sexism.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sexism was moderated by gender. Specifically,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significantly predicted sexism for men, but not for women. Moreover, only for men, sexism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zero-sum beliefs. Therefore,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could cause sexism which could promote zero-sum beliefs for men.

Key words :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sexism, zero-sum beliefs, gender, moderated mediating effect